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-4715004호 (2025.08.01~2026.07.31)

2025년 07월 31일

펀드 목적 및 전략

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[H]은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입니다.

이 투자신탁은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. 또한 10%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자등급 채권, 정부 발행 채권, 현금 및 유동성, 이머징마켓 지역 채권 및 운영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이 펀드는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.

펀드 운용성과



* 최초 설정일이 2020.10.23인 Class A 수익률 기준입니다.

* 운용성과, 수익률 그래프, 누적 수익률의 성과는 세전 수익률로 미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 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기간별 수익률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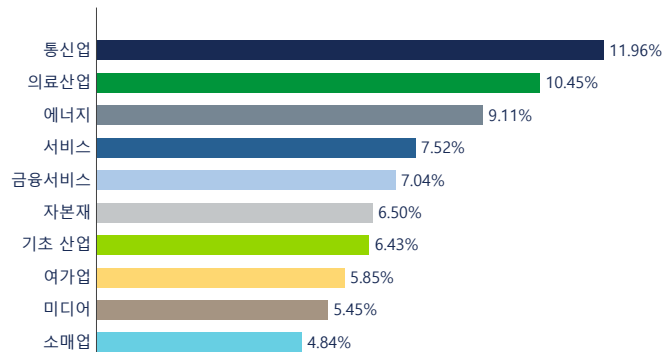
구분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3년	설정 이후
Class A	0.71	2.71	2.04	5.62	17.82	17.86
Class Ae	0.74	2.79	2.21	5.97	18.99	19.88
Class C	0.68	2.62	1.86	5.26	16.61	15.93
Class C-Pe	0.74	2.80	-	-	-	2.23
Class Ce	0.72	2.75	2.12	5.78	18.37	18.88
BM	0.78	3.34	3.45	8.43	25.88	25.60

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상위 10개 보유 종목

종목	구성비율(%)
LifePoint Health	2.03
Charter Communications Inc.	1.93
Radiology Partners	1.50
Herbalife Ltd.	1.37
EchoStar	1.24
Regal Rexnord Corporation (fka Regal-Beloit Corporation)	1.20
DIRECTV	1.07
Hilcorp Energy I/Hilcorp	1.05
Bausch Health Companies Inc.	1.02
Uniti Group Inc.	0.98

상위 10개 업종별 보유 비중



* 업종별 보유 비중은 2025.06.30 기준입니다.

지역별 보유 비중

지역	구성비율(%)
북아메리카	66.23
유럽	27.57
유동성자산	4.62
아시아태평양	0.82
기타 지역	0.76

* 지역별 보유 비중은 2025.06.30 기준입니다.

신용등급별 보유 비중

신용등급	구성비율(%)
BBB	9.06
BB	37.79
B	36.46
CCC 이하	8.17
Not Rated	3.08

* 신용등급별 비중 / 신용등급별 보유 비중은 2025.06.30 기준입니다.

· 해외 재간접 펀드의 경우 국가별, 업종별, TOP10, 신용등급 비중은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.

[투자시 유의사항]

-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본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-4715004호 (2025.08.01~2026.07.31)

2025년 07월 31일

펀드개요

• 순자산*	1,061억원
• 기준가	868원
• 펀드설정일	2020.10.23
• 신탁업자	하나은행
• 합성총보수비용(연,%)	
종류 C: 1.791	(운용:0.15,판매:1,신탁/사무:0.04기타:0.601)
종류 A: 1.443	(운용:0.15,판매:0.65,신탁/사무:0.04기타:0.603)
종류 Ce: 1.29	(운용:0.15,판매:0.5,신탁/사무:0.04기타:0.6)
종류 Ae: 1.113	(운용:0.15,판매:0.32,신탁/사무:0.04기타:0.603)
종류 C-Pe: 0.49	(운용:0.15,판매:0.3,신탁/사무:0.04기타:)
• 투자위험등급	5등급(낮은위험)
• 선취판매수수료	0.700% (A) 이내, 0.350% (Ae) 이내
• 후취판매수수료	
※ 클래스 S :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 0.15% 이내	
• 환매수수료	없음
• 환매대금지급기준	17시 이전 :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
	17시 경과 후 :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
• 벤치마크	ICE BofA Non-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- TotalReturnHedgedUSD(T-1) X 90% + MMI_CALL X 10%
• 분배기준일	매월 20일,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
• 분배금 지급일	분배금은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지급
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:종류 Ce(0.094%),종류 C(0.089%),종류 A(0.088%),종류 Ae(0.088%)	

합성 총보수-비용은 피투자펀드 총보수-비용을 포함.

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은 추정치를 사용하였기에 실제 총보수-비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음.

투자자 유의사항

- 이 운용보고서는 베어링자산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,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
-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
-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의견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자료의 정확성, 완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보고서의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내용의 무단복사, 사진복사 또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.
-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,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.
- 연금펀드의 경우, 중도해지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, 해지 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과세율과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의 기준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하이일드채권 투자 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,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자산, 주요종목, 국가별 비중은 운용펀드 내 비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(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).
- 해당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따라서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, 베어링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
- 월지급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월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.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부터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이익금이 분배금 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됩니다. 따라서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

BARINGS.COM

베어링자산운용

• 해외 재간접 펀드의 경우 국가별, 업종별, TOP10, 신용등급 비중은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.

[투자자 유의사항]

-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본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